

---

# 에스포지토의 증여로서의 면역(immunitas)과 공동체(communitas): 근대 면역 패러다임의 생명 정치를 넘어서는 커먼즈의 구축\*

김은주(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

## 〈목 차〉

- I. 들어가며: 경계와 생명
- II. 푸코의 생명 정치: 죽게 하는 생살여탈권에서 살게 하는 생명정치로
- III. 에스포지토의 생명 정치와 면역 장치로서 주권
- IV. 긍정적 생명 정치의 가능성: 증여와 과잉으로서 무누스와 면역
- V. 나가며: '지구 행성'의 커먼즈와 공동체

##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공동체와 면역의 새로운 관계 맺음을 성찰하는 에스포지토의 사유로부터, 이질성을 추방하면서 동질화를 추구하는 면역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생명의 역량으로서 면역을 긍정하는 근대 너머의 '지구 행성'의 커먼즈(communs)와 공동체를 모색하려는 것이다. 에스포지토는 인구를 통치의 대상으로 삼는 근대의 생명 정치가 면역적 주권 개념을 통과해 극단적 안전을 추구하며 동질적 공동체 소속을 강화하는 공동체를 구성한다고 비판한다. 에스포지토의 논의는 생명 정치의

---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 A02082683).

비판에 그치지 않고, 긍정적(affirmative) 생명정치를 모색한다. 에스포지토는 공동체인 코뮤니티스와 면역인 이뮤니타스의 조건을 면역의 어원이자 선물을 의미하는 무누스(munus)를 통해 그 가능성을 살핀다.

주제어: 공동체, 면역, 무누스, 생명 정치, 지구 행성, 인류세, 커먼즈

## I. 들어가며: 경계와 생명

코로나 19는 바이러스의 감염이 사람, 장소, 목적을 따지지 않으며, 행위자를 의도와 자율성에 입각한 근대적 주체인 개인으로 이해하는 바의 한계를 드러냈다. 무엇보다도, 팬데믹에 따른 일련의 상황은 가장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생명을 지속하고 '나'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언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일깨웠다.

근대의 세계는 정신과 신체를 분명히 경계 두고, 불가침의 경계를 지닌 주체이자 개인 그리고 이 개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경계의 분명함을 전제한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과 격리가 일으키는 중첩되고 중첩되지 않은 경계들은 '근대'가 가정하는 경계에 대한 질문을 야기한다. 라투르(Bruno Latour)의 말대로 생명은 단독으로가 아니라 얽히고설켜서 존재하며, "진창 속에 포개어진 채 거주하고, 그렇게 묶인 관계들을 협조나 경쟁에 국한할 수 없는" 것으로서, 사실상 "하나의 몸의 정확한 경계란 이처럼 대단히 불확실"하다.<sup>1</sup>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는 경계의 나눔에 착목해 생명의 탄생과 돌봄의 영역인 오이코스(oikos)에 속하는 조에(zoē)로서 생명이 정치적 현존으로서 비오스(bíos)에 의해 배제되는 동시에 포섭되면서, 서구의 정치가 정초되고 작동되었음을 비판한다.<sup>2</sup> 이에 대해, 푸코(Michel Foucault)는 『안보, 영토, 인구』에서

1. 브뤼노 라투르, 『나는 어디에 있는가?: 코로나 사태와 격리가 지구생활자들에게 주는 교훈』, 김예령(역), 이음, 2021, 75쪽.

2. 조에와 비오스에 관해 아감벤은 "모든 생명체(동물, 인간 혹은 신)에 공통된 것으로, 살아 있음이라는 단순한 방식을 가리킨 조에(zoē)와 폴리스라는 공동체에 포함되는 정치적 영역을 의미 비오스(bíos)의 구분"에 착목한다. "법과 폭력이 삶과 맺는 관계에 따라 자연생명(nuda vita)/정치적 현존(esistenza

인간됨의 자격을 비오스로서 생명에 부여하는 근대의 생명 정치를 분석하면서, 생명 권력을 “인간이라는 종의 근본적으로 생물학적인 요소를 정치, 정치적 전략, 그리고 권력의 일반전략 내부로 끌어들이는 메커니즘 총체”로 정의한다.<sup>3</sup>

이 글은 생명으로서의 비오스의 문제에 착목하여 푸코의 생명 정치(Bio-politique)를 근대 면역 패러다임 개념을 통과해 분석하는 로베르토 에스포지토(Roberto Esposito)의 논의를 다룬다. 에스포지토는 인구(population)를 통치의 대상으로 삼고 면역적 주권 개념으로 극단적 안전을 추구하는 생명 정치의 방어적 면역 패러다임을 추적하고 일탈 곡선을 평준화하는 생명 정치의 기술이 동질적 공동체 소속을 강화하는 공동체의 경계를 구성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그러나 에스포지토의 논의에서 흥미로운 점은 죽음의 정치로 향하는 생명 정치와는 다른 긍정적(affirmative) 생명정치를 모색한다는 점에 있다. 이를 위해 에스포지토는 공동체인 코뮌나티스(communitas)와 면역인 이뮤나티스(immunitas)의 조건이며, 면역의 어원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형태의 선물인 무누스(munus)를 통해 긍정적 생명 정치로 전환의 가능성을 살핀다.

본고는 공동체와 면역의 새로운 관계 맺음을 성찰하는 에스포지토의 사유로부터, 이질성을 추방하면서 동질화를 추구하는 근대적 면역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생성의 역량으로서 면역을 긍정하는 인류세의 ‘지구 행성’의 커먼즈(communs)와 공동체를 사유하려 한다.<sup>4</sup>

politica), 곧 조예/비오스(zoē/bíos)”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조르지오 아감벤, 『호모 사케르』, 박진우(역), 새물결, 2008, 33쪽.

3. 미셸 푸코, 『안진, 영토, 인구』, 오트르망(역), 난장, 2011, 477쪽, 생명 정치와 생명 권력을 구분하자면 다음과 같다. 생명 권력은 개인의 신체에 맞추어지는 규율 권력에서 인구를 대상으로 삼은 통치술이라는 미시 권력의 변모한 바를 짚은 푸코의 개념이다. 이러한 생명 권력은 규율 권력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인구 교정과 조절에 주목하는 통치 기술인 것이다. 이러한 푸코의 생명 권력을 주목한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에서 ‘예외상황’이라는 명목으로 주권 권력과 결합한 생명 권력을 생명 정치라 칭하고, 공동체에서 추방하고 수용소에 가두어 모든 권리를 상실케 한 ‘자연생명(nuda nita)’과 희생당한 ‘호모 사케르(homo sacer)’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생명 권력 개념을 생명과 죽음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정밀화한다.

4. 백연경에 따르면, 커먼즈(communs)는 공유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공유지, 공유재, 공유자원 등의 뜻을 지닌다. 커먼즈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오스트롬(E. Ostrom)이 소유권과는 별개로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common pool resources)이라는 의미에서 주로 파악되고 연구되었다. 그러나 커먼

## II. 푸코의 생명 정치: 죽게 하는 생살여탈권에서 살게 하는 생명정치로

푸코의 작업은 주권 권력이 생명과 죽음에 관한 물음에 직접적으로 얽혀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근대적 정치 용어들이 기원하고 정향하는 구체적 권력을 생명 개념으로부터 밝혀 낸다.<sup>5</sup> 이러한 푸코의 논의에서 주목할 지점은 19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권력인 생명 권력(bio-pouvoir)이다.

생명 권력의 특징은 고전적 주권 이론에서의 생살여탈권과 비교하면 분명해진다.<sup>6</sup> 생살여탈권은 주권자가 신민을 “죽게 만들거나 살게 내버려 두는 권리”를 가리키는 말로, 신민은 “주권자의 의지와 효과에 의해서만 삶과 죽음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sup>7</sup> 물론 권리는 주권자가 신민을 ‘살게 만들’ 수는 없고 ‘죽게 만들’ 수만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비대칭적이다. 즉, 고전적 주권 이론의 생살여탈권은 ‘죽게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생살여탈권과 달리, 생명 권력은 “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 두는’ 권력”으로서 정치권력의 장에서 출현한다. 주권의 지배에서 생명은 죽일 수 있는 권력에서 구제된 잔여물에 불과하지만, 생명정치에서 생명은 “죽음의 한계 지점과 윤곽선을 그리는 시나리오”의 중심에 포진한다.<sup>8</sup>

생명 권력이 관여하는 생명은 더 이상 규율 권력의 대상이 되는 개별 인간-신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생명은 살아 있는 인간이자 정확히 말해 ‘인간-종(homme-espèce)’이다. 즉 생명은 “생명에 고유한 과정 전체, 탄생, 죽음, 출산,

즈를 공동자원으로 보기에, “자원의 문제로 환원되기 어려운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commons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발음 그대로인 커먼즈로 표기”를 하고 있다. 백연경, 「커먼즈와 복지: 사회재생산 위기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한 시론」, 『환경사회학연구 ECO』 21집 1권, 한국환경사회학회, 2017, 115쪽.

5.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사형이 감소한다는 사실로 고전적 주권 모델의 위기와 주체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규율권력의 등장을 제시한다. 규율권력에서 개인의 죽음은 사회의 총체적 요구 사항과의 관계를 통해 해석되고, 법과 의학이 상호 침투하는 방향으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합리성이 등장한다. 이 합리성의 중심에는 생명의 보존, 개발 그리고 관리가 있으며, 이로써, 생명은 병리학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이나 중요한 문턱에서만뿐 아니라 모든 기간을 통틀어 권력 관계에 직접적으로 결부된다.

6. 미셸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김상운(역), 난장, 2018.

7. 위의 책, 288-289쪽.

8. Roberto Esposito, *Bios, Biopolitica e filosofia*, Einaudi, 2004; *Bios: Biopolitics and Philosophy*, Trans. Timothy Campbell, Minnesota University Press, 2008, p.34. (이 글은 영어판 번역을 인용한다.)

질병 등으로서의 과정에 영향을 받는 거대한 대중을 형성하는 인간”<sup>9</sup>이다. 이러한 인간의 생명은 온전히 개인에도, 사회에도 속하지 않으며, 집단의 관점에서 최적화된 종으로서 생명이다. 인간은 거대한 대중으로 형성되는 인간-종인 인구를 지시한다. 생명 정치는 인간-종인 인구를 통치하는 정치인 것이다.

인구에 발휘하는 권력인 생명 정치의 주된 특징은 생명을 죽이는 권력이 아니라 생명의 통제와 관리를 통해 생명을 ‘살게 만드는’ 권력이라는 데 있다.<sup>10</sup> 이러한 생명 권력의 통치 기술은 규율 권력의 기술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규율 권력의 기술은 개별 신체에 집중하여 신체들을 분리, 정렬, 계열, 감시한다. 이 기술은 개별 신체의 공간적 배분과 개별 신체들의 주변에서 가시성의 모든 장의 조직화를 보장하는 모든 절차로 등장한다. 그와 달리, 생명 정치의 통치술은 예측, 통계적 추산, 포괄적 조치 즉 조절 메커니즘을 통과해, 개별적인 현상이나 한 개인이 아니라 인구로서 인간을 살게 만들거나 죽게 내버려 둔다. 물론 생명 권력의 기술은 규율 권력의 기술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점은 생명 권력의 기술이 변형을 동반하는 새로운 방식이며 무엇보다도 개별 신체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으로서 인구인 인간-종을 겨냥한다는 점에 있다.

9. 미셸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291쪽.

10. 규율적 테크놀로지와 생명 조절적 테크놀로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규율적 테크놀로지는 신체에 집중하여, 개체화의 효과들을 산출하는 반면, 생명 조절 테크놀로지는 생명에 집중하여 인구에 고유한 집단적 효과들을 재규합하고, 살아 있는 집단 속에서 산출될 수 있는 우연한 사건들을 통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규율적 테크놀로지는 신체가 타고난 능력을 지닌 유기체로서 개체화되는 테크놀로지이며, 생명 조절적 테크놀로지는 신체가 전체의 생물학적 과정 속에 대체되는 테크놀로지이다. 여기서 푸코는 전자는 신체-유기체-제도들의 계열, 후자는 인구-생물학적 과정-조절메커니즘-국가의 계열에 해당한다고 밝힌다. 즉 제도에 의한 유기적-규율과 국가에 의한 생명-조절이라는 두 가지 계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푸코는 이 두 계열이 절대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규율이 국가적일 수도 있고, 국가가 하위적 수준에서 제도들로 조절하기도 한다고 부연한다. 또한 푸코는 이 두 메커니즘이 서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절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테면 노동자 주택단지는 신체에 대한 규율적 통제메커니즘인 동시에 인구에 관한 조절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또 섹슈얼리티는 신체적 행위로서 규율적 통제에 속하기도 하고, 인구의 생물학적 문제로 조절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규범’이 두 가지의 절합(articulation)을 보여준다. 규범은 규율하고자 하는 신체에도, 조절하고자 하는 인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19세기에 권력이 생명을 소유했다고 말하는 것은, 권력이 규율테크놀로지와 조절테크놀로지의 이중적 작동에 의해 유기체적인 것에서 생물학적인 것까지, 신체에서 인구까지 모든 표면을 덮어버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생명 정치에서 고려되는 현상들은 이제 집단적 수준에서만 정치적이고 경제적 의미를 가진다. 이로써, ‘인구’라는 새로운 생명 개념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진다. 그것은 개별적 차원에서라면 예측 불가능하고 우발적인 사건들이 집단적 수준의 생명으로 파악되면서 일정한 상수로 제시된다는 점이다. 중독의 예를 들어보자면, 생명 정치의 기술은 중독자를 대상으로 삼아 개인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징벌하거나 교정하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중독의 원인 역시 개인의 선천성이나 사회 문화와도 무관하다.<sup>11</sup> 생명정치의 기술은 중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정도의 중독을 허용하는 것에 있다. 이 기술은 중독자를 중독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살게 하는 규칙을 유지하게 하고 위기를 예방한다. 중독자로 인해 이윤이 생겨나는 시장을 제거하지 않으나, 통제 가능한 영역을 벗어난 사건, 중독자의 살인이나 중독으로 인해 사회가 무질서에 이르는 바를 미연에 방지하여 일정의 평형 상태의 규범을 존속하게 하는 것이다.<sup>12</sup>

결국 생명 권력의 주요한 관심은 시장을 불황에 빠뜨리는 죽음을 배제하면서 삶을 관리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치의 새로운 기술은 위와 같은 목적에서 인간-종의 삶 전반을 관리하면서 “탄생과 사망의 비율, 출산율, 인구의 번식력 등과 같은 과정 전체”에 개입하고, 이를 통제한다. 생명 권력은 “규율에서 조절로 마음대로 넘나들고, 육체에 적용되는가 하면, 인구에도 적용되고, 육체의 규율적 질서를 바로잡는가 하면 생물학적 다수의 우연적 사건들도 통제”한다.<sup>13</sup> 권력은 출생률과 사망률, 건강 수준, 수명을 통계 내며 직접적으로 인구를 조절한다.

그렇다면 생명 정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인구의 조건 개선, 인구의 부, 수명, 건강 증진”과 그에 따른 효율성의 증대이다.<sup>14</sup> 그러한 이유로, 생명 정치에서는 탄생과 사망의 비율, 출산율, 인구의 번식력은 중요하다. 또

11. Brett Levinson, “Biopolitics in Balance: Esposito’s Response to Foucault”, *The New Centennial Review* Vol. 10, No. 2,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2010, p. 246.

12. 위의 글, p. 247.

13. 미셸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291쪽.

14. 미셸 푸코, 『안진, 영토, 인구』, 159쪽.

한 질병 역시 중요한 정치의 항목이다. “질병은 생명에 스며들어 생명을 끊임 없이 갉아먹고 감소시키며 쇠약하게 만드는 항구적인 죽음”과 가깝기 때문이다.<sup>15</sup> 따라서, 18세기 말부터 공중위생 의학, 위생교육 캠페인과 의료화 캠페인의 모습을 띤 의학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는다. 산업화 시기인 19세기 초부터는 능력과 활동성이 떨어지는 노령, 신체장애, 비정상 신체 등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생명 정치는 보험, 개인적·집단적 저축, 안전 등과 같은 더 치밀하고 합리적인 경제적 메커니즘을 발휘한다. 메커니즘은 집단적 차원에서의 예측, 통계적 추산, 포괄적 조치를 특징으로 한다.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현상들의 결정 수준에 개입하여 균형을 유지하고, 항상성과 보상을 보증하는 일종의 조절적 메커니즘으로 등장한다. 집단적 차원에서는 보험, 저축, 안전 등의 메커니즘의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다.

생명 정치는 소위 통계학적 분석과 예측을 통과해 진실을 확증하면서 정상화의 잣대를 마련하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안전 메커니즘을 발휘한다. 모든 개개인을 아우르는 ‘인구’라는 개념은 안전 메커니즘에서 특히 중요하다. 인구를 유지하는 요소들, 예를 들면 발병률과 사망률의 평균값을 확인하면서, 안전메커니즘은 정상성(normalité)을 규준하며 작동한다. 안전메커니즘 기술의 핵심은 정상적인 모양의 곡선으로부터 가장 많이 이탈한 곡선을 다시 평준화시키는 작업에 있다.

통계학적 분석과 예측을 토대로 작동하는 안전 메커니즘의 안정화 장치는 인구 보호의 목표로 정상화를 마련하고 이로부터 규범을 연역한다. 이는 정상성을 통과하지 못한 존재들에 대한 추방과 죽음에 정당성을 제공하며 생명 통제의 강화로 이어진다.

### III. 에스포지토의 생명 정치와 면역 장치로서 주권

에스포지토는 안전을 위한 통제 사회로 향하는 푸코의 생명 정치에 “생명의 정치(a politics of life)” 또는 “생명에 대한 정치(politics over life)” 사이의 결정 불

15. 미셸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292쪽.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한다. 이는 생명 정치에서 '생명과 정치 이 둘 중 어떤 것을 주체와 객체로 삼을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며 생명 정치를 해석이 필요한 "일종의 블랙박스"로 만든다.<sup>16</sup> 생명 정치는 '생명의 정치'라는 '생명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정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생명 위의 정치', 즉 '정치적 명령의 대상이 되는 생명'이 있는 것이다.

에스포지토는 생명정치 개념의 모호함에 대해 푸코의 반응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생명 정치는 근대성(modernity)에 앞서 나가고, 따르거나, 일시적으로 일치하는가? 그것은 역사적, 획기적, 또는 독창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는가?"<sup>17</sup> 에스포지토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공동체인 코뮤니타스(communitas)와 면역인 이뮤니타스(immunitas)의 관계를 통해 생명 정치를 분석한다.<sup>18</sup> 이는 생명 정치를 근대성의 기획으로 조명하는 동시에, 근대 국가의 주권이 실상 자기 보존의 면역 패러다임을 작동케 하는 면역적 장치로 제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국민 주권은 면역 장치일 수 있는가? 생명의학의 영역에서, 면역은 개체가 특정 질병을 마주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이거나 유도된 무반응을 의미한다. 정치-법적 의미에서 이 용어는 이후에 살펴 볼 면역의 어원이기도 한, 개인을 타인과 묶는 구체적 의무나 책임인 무누스(munus)의 일

16. Esposito, 위의 책, pp.15-16.

17. 위의 책, p.8.

18. Levinson, 위의 글, p.243. 에스포지토에 따르면 푸코는 'bíos' 개념에 부여되던 역사적인 차원에서의 의미 역시 전복시킨다. 첫째로 니체적인 계보학이라는 방법론을 도입하면서, 푸코는 어떤 개념의 근원 혹은 그것이 겪은 일련의 사건을 탐사하는 것보다는 해당 개념의 형성을 가능케 한 힘들의 장이나 투쟁을 살피는 이론적 틀을 주조한다. 둘째로, 푸코는 다원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아 생명에서 역사의 표시, 간극, 그리고 위협을 읽어 내는 방식을 보여준다. 사실 다원은 생명의 진화가 어느 정도까지는 역사적 본성의 우발적 사건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종합하자면 푸코에게서 미국의 생명정치 개념에서 전제하는 것처럼 규정 가능하고 탈역사화된 인간 본성(자연)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18세기에 생물학의 탄생은 생명 개념에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새로운 과학적 범주가 등장했다는 사실에 빛지고 있다. 이에 푸코는 생명이 과학적인 개념이 아닌 에피스테메적 지표라 이야기한다. 즉 생명이라는 관념은 분류하기, 한계 짓기 등의 이론적 활동이 과학적 논의의 자체에 끼친 영향을 드러내 주는 지표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론적 해체 작업을 바탕으로 푸코의 생명정치 해석은 이전의 해석을 전복시키는 방식으로 확장된다. 다시 말해 생명정치라는 단어는 '생명'과 '정치' 중 어느 쪽도 중심에 두지 않으며, 결국 생명에 의해 정치가 결정되는 방식만을 참조하지 않는다. 그것 너머, 정치가 생명을 붙들고 관통하는 방식 또한 참조한다. Esposito, 위의 책, pp.29-30.

시적 혹은 확정적 면제를 뜻한다. 언어학적 기원의 측면에서, 면역인 이뮤니타스는 공동의 의무로부터의 해방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이뮤니타스는 커뮤니티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개인의 것을 박탈하는 바에 대한 방어와 저항으로 나타나며, 공동에 의해 위협당하는 개인의 경계를 구축한다. 또한 타인과의 묶임으로부터 면제된 자율적 개인의 이뮤니타스는 커뮤니티인 공동체의 부정과 결여로서 제시되기도 한다.

에스포지토는 공동의 의무로부터 해방이라는 측면에서 이뮤니타스가 부각된 것은 근대에 와서이며 자기 보존으로서의 주권 개념과 연결되면서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해진다고 분석한다. 가장 큰 이유는 “근대성만이 주권에서부터 자유에 이르는 모든 다른 정치적 범주의 전제를 자기-보존으로 만들기” 때문이다.<sup>19</sup> 근대성은 개인의 측면에서는 공동체와 반대항에 놓인 자기 보존의 개별적 모델로 면역을 위치 지우며, 공동체의 측면에서 개인의 자기 보존을 가능케 하는 형식으로서 면역을 작동시킨다.

에스포지토는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의 자연법 개념에서 주권과 면역의 연관을 밝히면서 근대의 면역 패러다임을 이성과 법을 자기 보존의 요구로 설명한다. 이를 위해, 에스포지토는 다음의 홉스의 말, “자연권은 인간이 자신 스스로의 자연, 즉 자신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행사하는 것”<sup>20</sup>에 주목한다. 이러한 홉스의 사유는 삶을 유지하고 보호할 본래적 필요성을 설명해 주는 것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고(자연권)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자연법)의 문제로 제시한다. 홉스는 필요와 충동, 욕구를 따르는 물질적 신체를 지닌 인간이 폭력적으로 등장하는 죽음과 공포 앞에서 타오르기 쉬운 정념을 지닌 존재로 설명하고, 이러한 정념의 위협으로부터 보호의 요구로서 이성을 주창

19. 위의 책, p.9.

20. Thomas Hobbes, *Leviathan*, Washington Square Press, 1976, ed. Francis B. Randall, p.87. 홉스는 동물과 다르게 아무리 강한 인간도 다른 약한 인간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두려움은 자연 상태에 있는 개인들을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통해 주권자를 만들고 그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면서 인공적 안전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들은 자유로운 주체들이며, 이들만이 적법하게 자신을 대표하는 주권에 의해 동등해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주체들은 자신의 고유한 개별성 안에서 동일하게 주권적으로 상상되고, 이에 따라 그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을 통제할 자유가 있는 만큼이나 주권에 복종해야 한다.

했다.

이러한 이성은 면역화의 체계이다. 에스포지토에 따르면, 홉스의 논의는 모든 살아 있는 유기체를 일종의 자연적 면역체계로서 이성을 지닌 존재로 가정하고 이성을 통해 외부 행위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 자연적 면역체계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개별적 이성이라는 기존의 체계는 이차적인 면역 장치(dispositif)로 대체된다. 이것이 바로 주권이다.

주권은 오직 타인과 동등하다고 여겨지는 원자적 개인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 홉스의 국가에서 개인은 '상호 분리 방식으로 연결'된 공동체의 원자적 일원인 것이다. 바로 그러한 개인들만이 자신을 적법하게 대표할 주권을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절대적 주권만이 원치 않은 강압적인 힘에 의한 개인의 종속을 막을 수 있다. 결국 절대적 주권의 조건하에서 원자적 개인은 자율성을 실행할 수 있다. 사실상 홉스에게서 안전은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주권자의 지배 아래에서 철저하게 고립화된 삶을 살면서 가능해진다. 이 점에서, 주권이 안전을 보장하는 면역화 패러다임은 주권의 절대성과 원자적 개인을 상호 배척이 아니라 상호 전제로 설정한다.<sup>21</sup>

정리하자면, 홉스가 말하는 근대 국가의 형성은 외부나 내부의 타자들이 야기하는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개인들이 절대 권력을 지닌 주권자를 세우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개인들 간의 관계를 단절하고 외부적으로는 타자들과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이질적 요소의 유입을 막으면서, 인공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주권이 자기 보존적 면역의 패러다임으로 작동하면서 자유의 개념 역시 고대적 의미에서 존재의 양태, 존재의 방식이라는 의미와 달라진다. 이제 자유는 근대의 자기보존 전략과 맞물려, 자기 보호의 권리를 뜻한다.<sup>22</sup>

이러한 자유 의미는 로크에게서 본격화되는데, 자유는 소유의 권리와 동일시된다. 소유의 권리로서 자유는 타인들의 침입에 맞서는 방어일 뿐만 아니라

21. Esposito, 위의 책, p.60.

22. 위의 책, p.72.

자신의 생명을 소유하는 자가 생명을 보존하려는 주체의 권리이다. 이 점에서 자유는 생명을 소유할 권리이자 생명을 소유한 자의 빼앗길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자유의 의미는 생명의 보존으로 축소되며 각 개인이 지니는 박탈할 수 없는 재산을 의미한다.

자유가 자기 보존과 재산권으로 국한되면서 근대적 생명 정치와 점차 일치를 이루고 점진적으로 자유는 곧장 '안전'의 개념으로 향한다.<sup>23</sup> 최초로 근대의 자유는 모든 개인적 주체가 자율을 행하는 자, 자기 생명을 소유하는 자로서 생명을 해치는 결정권자들에 맞설 권리로 존재한다. 하지만 저항하는 권리로 근대적 자유는 개인이 더 강력한 질서에 종속되면서 타인들의 침입에 맞설 수 있는 안전의 보장으로 변모한다.

이러한 안전은 홉스에게서처럼 폭력적 죽음에 맞서는 개인의 안전이 아니며, 전체 사회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의 순조로운 발전을 보장하는 그러한 안전이다. 면역 패러다임이 안전으로 향함에 따라, 면역화는 개별적이거나 집합적인 유기체의 보존만을 지시한다. 그러나 그 방식은 유기체를 스스로의 힘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힘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조건에 종속시키는 것이기도 하다.<sup>24</sup>

에스포지토는 안전으로 향하는 면역의 지평에서 점차 생명을 보호하는 바로 그 힘이 생명의 발전을 저해하는 난제를 마주친다고 지적한다. 면역 패러다임과 일치하는 주권은 생명 정치 시대에 말 그대로 대량학살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기제가 된다. 더 이상 전쟁은 힘의 정치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지 않으며, 그 전쟁에 연루된 인구의 생존이라는 명분을 걸고 주권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필수적 죽음을 요구하는 아포리아를 목도한다. 이는 타자의 죽음으로만 양분을 공급받는 인간적 자객으로서 생명이라는 비극적 역설이기도 하다. 이 상황은 나치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에는 자기 자신을 죽음에 처하게 한다. 하지만 아포리아는 해결되

23. 위의 책, p.74.

24. 에스포지토는 정치적 신체의 면역화 역시도 개별적인 신체의 백신 접종과 동일한 원리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지 못한 채 특히 주권이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생명 권력을 작동시키는 규율적 장치가 주권을 통과해 은폐되고 법제화되면서 사실상 어쩔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sup>25</sup> 생명 권력은 그 정점에 이르러 생명에 반하여 행사되며, 생명을 수호한다는 미명 아래 죽음 정치로 전도될 위험에 처한다.

근대의 주권 개념이 면역적 패러다임으로 기능함에 따라, 외부의 타자성과 이질성은 점차 위협적이 되며, 개인의 삶과 사회의 삶을 방어하고 수호하는 것이 근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립 근거가 되어 버린다. 에스포지토는 토마스 홉스, 존 로크와 같은 서양 근대 정치사상이 차이 나는 타자와 이질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여 내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만 면역을 이해함으로써, 근대성의 체계를 성립하고 동질한 내용을 지닌 생명의 자격을 부여하면서 이질성을 배제하고 생명을 통제하는 생명 정치를 작동하게 한다고 비판한다.

#### IV. 긍정적 생명 정치의 가능성: 증여와 과잉으로서 무누스와 면역

푸코의 생명 정치를 면역 패러다임으로 분석한 에스포지토의 작업은 근대적 생명 정치가 면역적 주권으로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안전을 공동체의 목표로 삼으면서 중국에는 인종을 말살하는 죽음의 정치에 이르는 사태를 비판하는 바에 있다. 그러나 그의 논의는 '생명 정치'에서 벗어나는 전환에 이르러는 것은 아니다. 에스포지토는 오히려 '생명 정치'의 의미를 다시 묻는다. 그는 생명과 인간됨의 관계를 미리 결정하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선제적으로 정의하는 논의에서 이탈해, 이를 역사와 자연, 생명과 정치가 쉬지 않고 교차하고 갈등하며 서로에게 침투하는 힘의 장을 구성한 푸코의 예리한 통찰을 따른다.

생명이 역사를 초과하는 생물학적 개념인 동시에 지식과 권력의 기술에 의해 관통됨으로서 역사 안에 기입되기도 한다면, 우리는 처음의 물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생명 정치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무엇이며, 세계는 어떻게 해서 점점 더 생명정치적인 환경에 의해 통치되는가?<sup>26</sup>

25. 위의 책, pp.38-44.

26. 위의 책, p.31.

에스포지토는 'bíos'가 지닐 수 있는 양 극단의 두 가지 의미 '주체화'와 '죽음'이라는 푸코의 사유에서 다시 출발한다. 앞서 언급했듯, 생명 정치는 생명의 정치가 되고, 반대편에는 생명 위의 정치가 된다. 문제는 면역 패러다임으로 작동하는 생명 정치가 죽음의 정치로 향한다는 것이다. 에스포지토의 작업은 생명 정치를 생명 위의 정치가 아닌, 생명에 대한 정치에서 비롯한 주체화의 가능성으로 살피는 것이다. 이는 생명을 인간됨의 자격으로만 한정하는 바를 넘어서는 것이자, 면역인 이뮤니타스의 어원인 무누스(munus)의 역할을 가늠하며 근대적 면역 패러다임을 넘어 이뮤니타스와 공동체인 코뮤니타스의 관계를 재사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에스포지토에 따르면, 면역인 이뮤니타스는 여러 의미를 지니는 라틴어 '무누스'와 연관한다. 무누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미는 '오누스(onus)'와 '오피키움(officium)'으로, 직분, 소임, 의무 그리고 공무의 의미에 가깝다. 세 번째의 의미인 '도눔(donum)'은 선물을 뜻한다. 에스포지토가 주목하는 것은 세 번째 의미이다. 도눔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의무와 공무의 형상이 결합된 선물, 증여이다.

도눔, 선물이자 증여는 북미 인디언들의 관습인 포틀래치(potlatch)와 유사하다. 포틀래치는 고대 사회의 결연의 방식인데, 사회적 연결은 증여(제공)하고, 수용하고, 답례할 세 가지 의무로서 유지된다. 주기, 받기, 답례하기라는 의무 규정을 통해 증여교환은 사회적 연대를 성취하게 하는 의사소통의 측면과, 타자에게 부채를 강요해 다른 사람의 우위에 서려고 하는 지배의 측면 모두 포함한다. 강제적인 암묵적 의무를 바탕으로 고대 사회에서 증여교환은 사실상 권력, 명예, 지위의 획득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증여는 호혜성의 원칙을 담보하는 권력을 증대하려는 현상으로 해석된다.<sup>27</sup>

그러나 에스포지토가 강조하는 도눔은 누군가에게 '받는' 선물이 아닌 '주

27. Thomas F. Tierney, "Roberto Esposito's 'Affirmative Biopolitics' and the Gift", *Theory, Culture & Society*, SAGE Publishing, 2015, p.6. 에스포지토는 무누스와 모스(M. Mauss)의 포틀래치의 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그는 선물이 교환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었다는 해석을 거부한다. 교환은 선물의 순수성과 댓가 없는 선물의 가능성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는' 선물의 의미가 강하다. 그리고 수신자에게 기부와 답례 형태를 요청하는 선물은 아니다. 도둑으로서 무누스는 수신자가 답례로 발신자에게 되갚기에 의의가 있지 않다. 오히려 도둑은 다른 이에게 대가 없는 선물을 준다는 것 그리고 이로부터 더 나아가 이러한 기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의미에 가깝다.<sup>28</sup>

증여로서의 도둑은 주기를 통한 결연을 만든다. 또한, 도둑을 받는 자는 되갚지 않기에 공동체에 선물을 받는 채무가 있다. 도둑으로서 선물을 받는 것은 “채무”이나, 이는 “나는 당신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I owe you something)”이지, “당신은 나에게 빚진 것이 있습니다(you owe me something)”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sup>29</sup> 도둑의 원리는 상호 교환이 아니며, 교환의 원리를 독점하는 것이나 부채 유무로 인한 위계서열과도 무관하다. 그런 점에서 도둑은 공동체로 향하는 비호혜적 주기, 증여이다.

에스포지토는 증여하는 도둑이라는 “무누스의 원형 또는 흔적”을 니체의 디오니소스적인 과잉개념에서 발견한다.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개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잉이며, 이것이 증여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잉에 따른 증여는 자기 자신과 타자의 경계를 해체하는 힘이자 감염력을 지닌 무누스의 선형태라는 것이다.<sup>30</sup>

일찍이 니체는 근대에서 면역의 징후를 진단한 바 있다. 근대의 면역화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통제되지 않는 힘인 무누스에 대항해 장벽, 한계, 제방을 세운다. 니체에 따르면,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야기하는 초개인적 과열의 전염에 맞선 대응이 면역화 장치이다. 면역화는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의 효과

28. 에스포지토의 니체 분석은 바타이유(Georges Bataille)의 니체에 관한 저작 *Sur Nietzsche*(Gallimard, 1945)에서 영향을 받았다. 바타이유는 “북미 서해안 인디언들의 관습인 ‘포틀래치’에 대한 모스의 분석에 따라 선물(증여)의 목적을 생산양식과는 무관한 파괴양식”을 모색한다. “증여한다는 권력의 연음으로 이어져야 한다. 증여는 증여의 주체로 하여금 부를 초월하게 하므로, 주체는 증여한 물건 대신 초월을 얻는다. 증여주체는 부를 버림으로써, 미덕과 권력을 얻는다. 말하자면 그는 부를 무시함으로써 오히려 부자가 되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관대함이라는 미덕 덕분이다.” 강용수, 「니체와 바타이유에 대한 철학적 비교연구: 증여와 주권을 중심으로」 『해석학연구』 26집, 한국해석학회, 2010, 33쪽.

29. Tierney, 위의 글, p.8.

30. Esposito, 위의 책, p.89.

를 중화시키려 작동하는데 국가라는 제도가 면역화의 장치라는 것이다. 과잉과 감염으로 증여하는 무누스를 근대적 면역화 장치가 막으려 했다는 것이 니체의 분석이다.

에스포지토는 니체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 실린 「퇴화를 통해 고상해짐」을 인용하며, 적을 궤멸하는 방식으로 면역화를 실행하는 근대성의 면역 장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니체의 논의를 따른다. 문제는 불확실성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 외부의 힘을 막아 내는 경계를 고수하려는 조치가 과잉 면역으로 작동하면서 공동체가 결국 그 생명력을 잃는다는 것이다.<sup>31</sup> 면역계가 원래의 환경이나 자기 자신의 구성 성분을 이물질로 인식하는 과잉 면역의 진행을 따르면서, 점차 생명은 결국 죽음에 이른다. 이를 통해 에스포지토는 삶의 영역에 울타리를 치는 처방이 과잉 면역을 일으키고 죽음의 정치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또한 에스포지토는 정상적인 “건강”의 개념이 불가능하며, 셀 수 없이 많은 몸의 건강만이 있을 뿐이라는 니체의 논의에 주목한다. 완벽한 건강에 대한 규범이 없다면, 각자 다른 건강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뿐이다. 또한 질병에 대한 정의마저도 가능하지 않게 된다. 건강과 질병의 관계도 단순한 배제와 대립으로만 이해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둘의 관계는 더 복잡해지는데, 질병은 건강에서 비롯되며 건강 내에 박탈할 수 없는 내적 요소로 내포된다.<sup>32</sup> 건강이 더 이상 질병과 떼어 수 없는 관계이고 사실상 건강의 한 부분이라면, 우생학적 전략을 지지하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과잉과 감염이 일으키는 선물과 증여로서 무누스라는 의미에서 면역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다음의 사실이다. 면역이 기능하기 위한 항체의 활성화는 신체에 항원세포를 주입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면역은 자신과 다른 이질적인 차이에 예방적으로 감염되어 일차적으로 생명의 힘들을 약화시킨다. 감염은 이질적 차이로부터 개방이기에, 이로 인해 신체는 연약한 상태에 이르나 이질적인 것과의 생산적 결합으로 생명

31. 위의 책, p.105.

32. 위의 책, p.103.

은 활력을 찾고 생성을 거듭한다.

증여로서 무누스라는 측면에서 면역을 다시 살피면, 이는 차이에 자신을 개방하는 감염을 동반하며, 기존의 자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닌 생산적 결합으로 생명을 생성한다. 에스포지토는 이러한 면역이 사실상 인간 생명 탄생의 원동력을 설명한다. 흔히 임신과 출산을 하나의 생명 탄생으로 생각하나, 증여하는 면역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자기 보호의 면역계를 지닌 모체는 이질적인 것에 자신의 면역계를 개방하고 공존하면서, 다른 면역계를 지닌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낸다. 이 점에서 사실상 출산은 하나의 생명이 스스로 두 생명(혹은 여러 생명)을 생성하는 것이다.<sup>33</sup>

이러한 증여로서 작동하는 면역이 지닌 역량에 대해 에스포지토는 『이식(L'Intrus)』에서 낭시가 자신의 심장 이식 경험에 관한 성찰을 끌어온다.<sup>34</sup> 낭시는 심장 이식과 암 투병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구한 선물인 심장 기증(증여)에 감사하며 이를 값어치 없는 선물로 서술한다. 기증된 심장과 이식 받은 심장 후 삶은 교환적 상호관계와 무관하다.<sup>35</sup>

낭시는 심장 이식 후 잠시 누구인지 모를 그 존재에 느끼는 유령과 같은 친밀감은 금세 사라지고 이 심장 이식이라는 선물로 인해 침입자가 내 안에 있음을 선명히 느낀다. 침입자는 낭시의 말에 따르면, “나는 나 자신에게 이방인”이 되게 한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 낯선 사람이 된다고 해서 그 침입자와 더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다. 이식이라는 침입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침입이 일어나자마자, 침입은 스스로 증식하고 이 낯섦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내부의 차이를 확인하게 한다. 심장 이식의 경험은 낭시로 하여금 “나는 닫혀진 개방(I am closed open)”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sup>36</sup>

낭시는 자신을 변이체이자 안드로이드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심장 이식 후,

33. 위의 책, p.108.

34. Jean-Luc Nancy, *L'Intrus*, Éditions Galilée, 2000.

35. 이 점에서 증여는 낭시의 무위(non-agir) '비행동'(non-agir)이며, “어떤 물러남 가운데, 어떤 받아들임”이며 “도래하게 내버려 둬, 또는 존재하게 내버려 둬”의 차원에서 해석 가능하다. 장-뤽 낭시, 『무위의 공동체』, 박준상(역), 인간사랑, 2010, 11~12쪽 참조.

36. Jean-Luc Nancy, 위의 책, p.35.

이식 받은 심장은 낭시의 신체 나이보다 20살이나 어린 기관이며, 이식과 암 투병을 거치면서 신체는 질병과 치료제, 암세포와 이식된 심장, 면역억제제와 그 완화제가 뒤엉켜 함께 존재하며, 흉골과 쇄골 아래 영구적으로 꿰매어진 지탱하는 강철 와이어가 있다. 심장 이식과 암투병은 소위 자기 자신이라 불리는 바를 초과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일종의 비어 있는 정체성이며, 이는 그저 “나는 나다(I = I)”와 같은 동어 반복에 의해 그 확실성을 의존할 수 없다.<sup>37</sup>

이 되값을 수 없는 증여는 내 안에 다른 것으로 침입하여 살게 하고 또 다른 경계를 면역계로 생성한다. 결국, 증여로서 무누스의 역량을 지닌 면역은 동일성이 아닌 이질성을 통과해 작동하며 차이를 생성함으로써 살게 한다. 이는 나라는 경계를 다시 사유하게 하며, 인간의 신체, 생명의 경계 지움의 근거로써 동일성을 흔들어 놓으며 그 경계 지움에 대해서 되묻는다.

근대의 공동체는 같음을 공유함으로써 일원이 되는 공동체였기에 다름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면역의 기능을 외부의 것을 차단하는 역할에 한정 지었다. 그러나 증여로서 무누스의 역량을 강조하는 면역은 성별이나 민족 등의 여러 사회 범주와 관계없이 혈액형을 같으면 누구에게나 이식될 수 있는 낭시에게 이식된 심장과도 같다.<sup>38</sup>

증여로서 작동하는 면역은 소유하는 권리가 아닌 공동의 자원으로서 모든 사람이 삶과 죽음을 공유하고 삶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고 소통할 수 없는 것이 소통하는 네트워크인 공동체를 생성한다.<sup>39</sup> 또한 차이에 개방하는 증여하는 면역은 그저 다른 인간을 향한 열림만이 아니라 인간의 타자, 비인간으로 향하는 개방을 내포한다. 이 점에서 증여로서 면역의 역량은 경계의 개방에서 생겨나는 역량, 커먼즈이다.

37. 위의 책, p.39.

38. 위의 책, p.30. 낭시는 흑인 여성의 심장을 기증받았다.

39. 낭시의 용어로 말하자면, “공동-내-존재로 또는 함께 있음, 더불어 있음”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이영배, 「무위의 공동체와 민족의 공동(共同)성」, 『공동체와 민족연구』, 안동대학교 민족학연구소, 2021, 13-14쪽; Thomas F. Tierney, 위의 글, pp.16-18.

## V. 나가며: '지구 행성'의 커먼즈와 공동체

근대의 면역 패러다임 공동체는 외부로부터 보호받은 채 내부에 존재하는 공동의 것을 나누어 교환하는 상호주의를 전제한다. 이 공동체는 동질적인 것들을 통해 정체성을 확인하고 경계 지움의 안전을 조건으로 삼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이거나 공동체주의적 공동체의 형태로 등장한다. 전자는 개인을 고립된 원자로 가정하고 후자는 공동체를 하나의 실체로서 이해한다.

근대 면역의 신화는 외부와 벽을 쌓으면서 자아와 타자를 분명히 구분하고 내부를 군사적으로 보호해야만 면역이 강화되며 공동체가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신화는 사회적 정치적 신체의 도상과 일치하는 인간 신체를 가정한다. 이 신체는 변치 않은 경계를 지닌 것, 표준과 정상성을 전제하는 인간 신체이다. 하지만 사실상 이 신체는 남성, 백인, 이성애자, 기독교인, 재산소유자, 메트로폴리스의 거주자이자, 이에 대한 철학적 전제를 구현하는 해부학적 이미지의 재현과 실현이다.<sup>40</sup>

비오스에서 에스포지토는 근대의 신체와는 다른 살(flesh)의 계보를 메로로 폰티(Maurice Merleau Ponty), 스피노자(Baruch de Spinoza), 들뢰즈(Gilles Deleuze)의 논의로 모색한다. 이러한 살에 대한 주목은 사실상 불변하는 완벽한 경계 지워지는 단일한 신체가 사실상 생명체에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러한 근대적 신체 개념과 그에 근간한 공동체가 중국에 죽음의 정치로 이르는 생명 권력의 정상성을 따르는 것일 뿐이라는 통찰에서 기인한다. 에스포지토의 작업은 인간과 비인간을 절대적 구별하고 인간 생명만을 확인하려는 근대적 패러다임의 생명 정치가 내포하는 허무주의와 결별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에스포지토는 『면역(Immunitas)』의 마지막 장인 '이식' 장에서 면역을 '생명정치의 심장'으로 제시하면서, 명확한 경계를 지닌 별개의 독립체라는 신체 개념을 비판한다. 그리고, 경계 설정을 면역의 문제로 제기한 도나 해러웨이의 논의에 빚진 바를 밝히며 이에 대해 보다 폭넓게 논의한다.<sup>41</sup>

40.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 휴먼』, 이경란(역), 아카넷, 2015, 15-16쪽.

41. Thomas F. Tierney, 위의 글, p.17.; Roberto Esposito, *Immunitas: The Protection and Negation of Life*, trans. Z Hanafi, Malden, MA: Polity, 2011, p.146. 도나 해러웨이는 자기와 타자의 경계 구기를 관점의

앞서 살펴보았듯이, 무누스로 작동하는 면역의 역량은 동질성을 보존하는 확고한 경계가 아니라 차이에 개방하는 것에서 비롯하며 사실상 자기 보존의 경계 바깥에서 경계를 새롭게 생성한다. 이러한 무누스로서의 면역으로부터, 우리는 인류세의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근대 너머에서 커먼즈에 관해 다시 사유해야 한다. 오랫동안 커먼즈는 근대적 소유권의 차원에서 공통된 우리의 것으로만 설명되어 왔다.<sup>42</sup> 인클로저를 동반하는 근대화의 과정은 커먼즈에 있어서 보편적 권리의 차원을 해체하고 근대법 속에서 사적 소유의 차원으로 제도화 했다.

그러나 이광석이 명시하였듯, “문화인류학자 루이스 하이드 또한 커먼즈를 ‘함께(com-)’ ‘의무를 진다(under obligation/duty)’는 뜻의 ‘무니스(munis)’ 혹은 ‘무너스(munus)’에서 온 ‘무니아(munia)’가 모여 만들어진 말로 풀이”한다.<sup>43</sup> 그런 점에서, 무누스이자 증여로서 면역의 역량에서 비롯하는 커먼즈는 이미 지닌 동질한 것이나 공동체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특징이나 재산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함께 의무를 지는 관계이다. 사실상 커먼즈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소유가 끝나는 지점에서 생겨난다.<sup>44</sup> 이러한 커먼즈는 근대적 패러다임의 설정한 자원의 경계와 공동체의 경계를 재구성하고 다시 사유할 것을 촉구한다.

이 점에서, 이 커먼즈는 동질성을 담보한 우리의 것이 아닌, ‘지구 행성(earth planet)’에 거주하는 ‘모두’의 것인 인류세(Anthropocene)의 커먼즈이다. 면역의 역량에서 보자면, 커먼즈는 “모든 생물은 공통의 ‘살(flesh)’을 수평적으로

문제가 목적의 문제에서 살펴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어떤 경계들이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견고하겠는가?”라 질문한다. 도나. J. 해러웨이, 『한 장의 잎사귀처럼』, 민경숙(역), 갈무리, 2005, 130쪽.

42. 정영신에 따르면 모두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 그리고 사적 소유로 재현되는 ‘근대적 커먼즈’만이 커먼즈로 주요하게 이해되었고, “오스트롬 학파의 커먼즈 연구는 커먼즈에 대한 보편적 권리의 차원이 사라진 조건하에서 연구”라 하겠다. 정영신, 『한국의 커먼즈론의 쟁점과 커먼즈의 정치』, 『아시아 연구』 23집 4권, 한국아시아학회, 2020, 247-249쪽.

43. 이광석, 『안전, 영토, 인구』, 『커먼즈, 다른 삶의 직조를 위하여: ‘피지털’로부터 읽기』, 『문화/과학』 101권, 문화과학사, 2020, 54쪽에서 Lewis Hyde, *Common as Air: Revolution, Art, and Ownership*, Farrar Straus and Giroux, 2010. 재인용.

44. Roberto Esposito, *Communitas: the Origin and Destiny of Community*, (trans.) Timothy Campbell,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p.7.

(laterally), 기호학적으로, 계보학적으로 공유”하는 커먼즈이기도 하다. 이러한 커먼즈는 지구 밖에서 조망된 대문자 지구가 아닌 대지로서 소문자 ‘지구 행성’의 커먼즈이다. ‘지구 행성’의 커먼즈는 생명을 인간적인 것, 인간 생명으로 확장하는 바에서 벗어나 “자원과 주체로 이분화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존재들의 마주침과 얽힘 속에서 공존과 공생”이 이루어지는 “인간 너머의 커먼즈(more-than-human commons)”이다.<sup>45</sup>

이러한 인간 너머의 커먼즈이자 ‘지구 행성’의 커먼즈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 사이의 상호침투와 관계 변화의 이해를 동반한다. 그리고 이는 커먼즈를 인간중심주의적 입장에서 자원으로 간주하는 “생산 체계(system of production)”의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을 분산된 역할 중 하나를 맡는 것”으로 이해하고 “대지의 것들(terrestrials)의 생성”을 일으키는 상호의존적인 “생성 시스템(system of engendering)”으로 접근하는 것이기도 하다.<sup>46</sup>

인류세의 ‘지구 행성’의 커먼즈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는 2020년 제주의 비자림로 생태정치의 양상에서 나타난 “인간의 나무 되기”라는 슬로건이다. 인간의 나무 되기는 “그 숲에 들어간 사람들은 나무가 되어서 나왔다”는 문체 의식을 표방한다. 나무 되기는 “숲이나 동물 등의 비인간 존재들을 단순히 이용대상으로서 ‘자원’으로 규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용자인 인간이 자원으로서는 커먼즈인 비인간을 이용하기 위해 보호한다는 위계 질서적 담론을 해체한다. 이용하는 주체와 사용되는 대상의 구분을 문제시하는 나무 되기의 생태 정치는 “숲을 인간의 경제적 이용을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복수의 종들의 행위성이 교차하는 현장”으로 사유하게 한다.

‘지구 행성’의 커먼즈는 근대적 패러다임을 넘어 복수의 종들이 얽히는 무누스인 면역의 역량을 긍정하면서, 생명의 경계를 인간에 한정 짓는 바를 비판하고 “지구-에-뮌인 자들과 함께 만들-함께 될, 함께 구성할-필요”에서 비롯한 공동체를 모색한다.

45. 정영신, 「제주 비자림로의 생태정치와 커먼즈의 변동」, 『환경사회학연구ECO』, 2021, 292쪽.

46. 브뤼노 라투르,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신기후체제의 정치』, 박범순(역), 이음, 2021, 119쪽.

이 공동체는 그간 존재한 공동체의 경계를 확장하거나 수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의 구축은 인간 정치체의 역사적 존재론을 추적하고, 지구 행성의 다른 거주자들과 맺는 관계를 기존과 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윤리적 거주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자기 보존의 신호를 유지해 온 인간 정치체의 역사적 존재론을 살피며, 근대의 비인간 타자를 지배하는 논리가 강제하는 자율적 주체됨의 환각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경계와 그 범위 그리고 공동체에 속한 존재들의 권리의 내용을 다시 사유하고 창안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공동체의 구축은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장애 유무 등에 따라 근대 인간의 범주에 속하지 못했던 '비인간' 존재들의 힘기르기(empowering)와 “경계에 책임을 지는” 주체화를 동반하는, 근대 국민 국가 너머의 새로운 거주 방식을 제기한다.<sup>47</sup>

이러한 거주 방식은 공동 세계의 창안이자, 함께 살아가는 심포이에시스(sympoiesis)로서의 공생(sym-biosis/poiesis)을 의미한다. 해러웨이가 제안한 심포이에시스는 “자신의 경계를 재구성하는 오토포이에시스를 넘어, 복수종 생물들의 상호구성적·상호유도적 방식의 함께 만들기”이다. 이는 다종적 얽힘을 긍정하며, “미생물, 식물, 동물, 다른 인간들 등 다종적 배치(multi-species assemblage)의 일원”이자 서로에게 깊이 연결된 존재임을 긍정하기이다.<sup>48</sup>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는 지구 행성 거주자인 우리는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횡단하며 공동 집단을 형성한다.<sup>49</sup> 우리는 지구 행성에 거주자이자 유일한 물질로서의 생명체이며, “진화의 과정에 있는 존재로서 함께 얽힌 과정(entangled process)”으로서의 집합체이다.<sup>50</sup> 그리하여 무누스의 역량을 긍정하는 지구행성의 커먼즈는 얽힌 과정의 존재들의 공동체를 구축하기이자, 인간 중심주의적 근대 면역패러다임이 조건 짓는 정상성 수호의 안전이 아니라 연

47. 김은주, 「포스트 휴먼 신체와 공생의 거주하기: 정동체로서 포스트휴먼 신체」, 『디지털 포스트휴먼의 조건』, 갈무리, 2021, 98-99쪽.

48. Donna J. Haraway, *Staying with the Trouble*, Duke University, 2016, p.58.

49. 브루노 라투르, 위의 책, 113쪽.

50. 하대칭, 「다종적 얽힘과 돌봄: 코로나 감염병 시대 공변성을 위한 윤리」, 『안과 밖』, 영미문화연구회, 2020, 244쪽.

결과 개방을 통해서 이질성과 복수성을 동력으로 삼아 공동체를 지속하기인 것이다.

## 참고문헌

- 도나 J. 해러웨이, 『한 장의 잎사귀처럼』, 민경숙(역), 갈무리, 2005.
-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 휴먼』, 이경란(역), 아카넷, 2015.
- 미셸 푸코, 『안전, 영토, 인구』, 오토르망(역), 난장, 2011.
- \_\_\_\_\_,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김상운(역), 난장, 2018.
- \_\_\_\_\_, 『감시와 처벌』, 오생근(역), 나남출판, 2020.
- 브뤼노 라투르, 『나는 어디에 있는가?: 코로나 사태와 격리가 지구생활자들에게 주는 교훈』, 김예령(역), 이음, 2021.
- \_\_\_\_\_,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신기후체제의 정치』, 박범순(역), 이음, 2021.
- 장-뤽 낭시, 『무위의 공동체』, 박준상(역), 인간사랑, 2010.
- 조르지오 아감벤, 『호모 사케르』, 박진우, 역, 새물결, 2008.
- 강용수, 「니체와 바타이유에 대한 철학적 비교연구쪽: 증여와 주권을 중심으로」, 『해석학연구』 26집, 한국해석학회, 2010, 23~49쪽.
- 김은주, 「포스트 휴먼 신체와 공생의 거주하기: 정동체로서 포스트휴먼 신체」, 『디지털 포스트 휴먼의 조건』, 서울: 갈무리, 2021, 60~102쪽.
- 백연경, 「커먼즈와 복지: 사회재생산 위기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한 시론」, 『환경사회학연구ECO』 21집 1권, 한국환경사회학회, 2017, 111~143쪽.
- 이광석, 「커먼즈, 다른 삶의 직조를 위하여: ‘피지털’로부터 읽기」, 『문화/과학』 101, 문화과학사, 2020, 50~78쪽.
- 이영배, 「무위의 공동체와 민족의 공동(共同)성」, 『공동체와 민속연구』,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21, 5~46쪽.
- 정영신, 「한국의 커먼즈론의 쟁점과 커먼즈의 정치」, 『아시아 연구』 23집 4권, 한국 아시아학회, 2020, 237~260쪽.
- \_\_\_\_\_, 「제주 비자림로의 생태정치와 커먼즈의 변동」, 『환경사회학연구ECO』 25집 1권, 2021, 257~299쪽.
- 하대청, 「다중적 위험과 돌봄: 코로나 감염병 시대 공변성을 위한 윤리」, 『안과 밖』, 영미문화연구회, 2020.
- Esposito, Roberto, *Communitas: the Origin and Destiny of Community* (trans.),

- Timothy Campbell, CA: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 \_\_\_\_\_, *Bios: Biopolitics and Philosophy*, trans. Timoth Campbell, Minnesota: Minnesota University Press, 2008; *Bios. Biopolitica efilosofia*, Torino: Einaudi, 2004.
- \_\_\_\_\_, *Immunitas: The Protection and Negation of Life* (trans.), Z Hanafi, Malden, MA: Polity, 2011.
- Haraway, Donna J., *Staying with the Trouble*, Durham: Duke University, 2016.
- Hobbes, Thomas, *Leviathan*, ed. Francis B, Randall,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1976.
- Hyde, Lewis, *Common as Air: Revolution, Art, and Ownership*, New York: Straus and Giroux, 2010.
- Levinson, Brett. "Biopolitics in Balance: Esposito's Response to Foucault", *The New Centennial Review* Vol. 10, No. 2 ,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2010, pp.239~261.
- Nancy, Jean-Luc, *L'Intrus*, Paris: Éditions Galilée, 2000.
- Tierney, Thomas F., "Roberto Esposito's 'Affirmative Biopolitics' and the Gift", *Theory, Culture & Society*, SAGE Publishing, 2016, pp.53~76.

## Abstract

### Community and Immunity of Esposito as a gift

Kim, Eun-Joo (University of Seoul, Research Professor)

This article deals with the discussion of Roberto Esposito who analyzes Foucault's bio-politics as a modern immune paradigm concept, focusing on the problem of life as a bios. According to Foucault, bio-power emerges in the arena of political power as "power to 'make' live and 'let' die." In the bio power, life is involved is a living human being, precisely the 'population'. Esposito criticizes the modern bio-politics, which takes the population as the object of its rule, for constructing a community that pursues extreme security through the concept of immune sovereignty and strengthens homogeneous community membership. What is interesting in this discussion of Esposito is that it does not stop at criticizing bio-politics, but seeks an affirmative bio-politics. To this end, Esposito examines the possibility through munus, the condition of community and immunity. Munus means a non-reciprocal gif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By understanding the thought of Esposito that reflects 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and immunity, we break away from the immune paradigm that pursues homogenization while expelling heterogeneity, and seek earth planet's commons and community that affirm immunity as the capacity of genesis beyond modernity.

Keywords: anthropocene, bio-politics, community, earth planet, immunity, munus

논문 투고일 : 2022년 02월 28일
심사 완료일 : 2022년 03월 29일
게재 확정일 : 2022년 04월 03일